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6·13 지방자치선거 두 달을 앞두고

6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두 달여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가 홈페이지 대문 제일 위에 큼직하게 쓰여 있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돌아왔다. 전국 지방공공에서 특별시·광역시·직할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뽑고 특별시·광역시·직할시 시의원과 도의원, 시의원·군의원·구의원을 뽑는다. 비례대표 시·도·구·시·군 의원, 여기에 시·도 교육감도 함께 뽑는다. 한 사람이 일곱 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선택의 국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

서양의 봉건시대 절대 군주(君主)나 봉양의 왕조(王朝)시대의 왕(王)들은 자기 자식 대대손손 절대 군주와 왕의 자리를 세습(世襲)시켰다. 한 번 태어난 신분과 지위,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주어서 일반 백성이나 서지(庶子), 하인(下人)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러한 신분 세습의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를 누리게 하기 수

전 년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거처야 했다.

선거란 무엇인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기를 대표해서 나라와 지방의 공공의 일을 처리해 줄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선거권도 돈과 지위가 많은 귀족이나 부자, 남자들만 가지고 있다가 성별과 인종, 종교, 계급, 재산을 떠나서 완전히 평등한 선거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또 많은 세월이 흘러 가야 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할 대표자를 내보내야 할 정당들도 고민이 많다. 전국적으로 많은 선출자를 내지 못하고 참패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다행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아서 전국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기에 국민의 단단한 지지를 받고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의 유혹은 아직도 강렬하다. 부정선거의

달콤한 유혹은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다. 후보자들끼리의 흑백선전도 문제다. 선거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운동과 정책선거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공명선거, 정책선거, 국비로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선거 공영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어가는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자를 공천하는 정당들도, 선택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들도, 후보자들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모두 앞으로 나와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해야 할 계절이 왔다. 선거는 선택이다. 신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헤쳐 나가는 길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해도 어떻게 안할 것인가 등 수많은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몸과 말과 글과 판단, 신언서판(身言書判)은 옛날 인물을 고르는 표준으로 삼던 네 가지 조건이었다. 나는 이 신언서판은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고(身),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言), 가능하면 자기의 생각을 글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書),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서 잘 생각하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판단력(判)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 학교교육에서나, 가정교육에서나, 평생교육에서나 가르치고 강조하는 우리 삶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정치와 선거, 우리 사회 문제와 우리 네 삶에서 잘 생각하고 잘 구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수준 높은 판단력을 기질려면 관심을 갖고 배우고 함께 하는 열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은 정치와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네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우선 조건이다.

좋은 정당과 좋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화연과 지연, 혈연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인물과 정책, 정당을 보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잘 선택해서 욕만 얻어 먹는 불신의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말이나 걸로만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뒤에서는 온갖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느라고 밤낮이 없는 이중인격자, 위선자들을 더 이상 뽑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국민 정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선출한 지역민들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할 날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社說

112 허위신고 범죄자 된다

폭발물 설치나 강력사건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경찰이 강력히 대응한다니 절대 삼가야 한다.

경찰청은 허위·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같은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한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형사입건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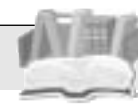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천837건에서 2014년 1천913건,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2017년 한 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 4천406명, 차량 9천487대였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로 절반을 차지했다.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장난 전화와 허위 신고를 일삼는 사람들은 112전화의 오남용 행위로 정착 위협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이 이제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墨 悲 絲 染

묵 悲 絲 染

▷ 뜻: 흰 실에 검은 물이 들면 다시 희지 못함을 슬퍼함. 즉 사람도 매사(每事)를 조심하여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농어촌 사륜 오토바이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해야

사륜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는 농사용 또는 각종 레저용으로 각광받아 온지 오래며 요즘 농촌에서 그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날로 증가 추세이다. 그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발이는 이륜오토바이에 비해

바퀴가 네개라 안정적이라는 인식과 짐을 싣기도 용이하여 농촌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농촌실정상 대다수의 사발이 운전자는 고령층인 노인들이어서 교통사고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사발이는 차량과 달리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지상고가

높아 급커브나 비포장길에 안정성이 떨어지며 사고 시 운전자가 위험해 직접 노출되고 핸들은 일반 오토바이처럼 바(bar)형태로 이루어져 노약자나 부녀자가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일부에선 시골에 계신 노부모에게 효도차원에서 사발이를 선물하

는 자녀들도 있는데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번호판 등록 및 의무보험가입을 해야 함을 유념하자.

농촌에 편리한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발이 특성과 운행제제 등을 바로 알고 보다 안전하게 타도록 하자. 또한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백희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happiness.